

전남 올 화재 하루평균 5건 4000여만원 상당 잿더미로

지난해보다 발생 건수·인명 피해 급증

올해 전남지역에서 하루 평균 5건의 화재가 발생해 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보다 건수와 인명, 재산 피해 등 모든 분야에서 1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조사돼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남도소방본부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화재건수는 1808건으로 하루 평균 4.95건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인해 1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등 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액은 부동산 58억5000만원, 동산 83억원 등 141억5000여만원

으로 하루 평균 3880만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화재 발생 건수(1552건), 인명피해 43명(사망 9명, 부상 34명), 재산피해(117억원)와 비교해 건수는 14.1%, 인명과 재산피해는 각각 12.2%, 17.3% 늘었다. 화재 원인으로서는 부주의가 51.1%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전기 21%, 기계 9.8% 등의 순이었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보다 건조한 날씨가 많아 일야와 벗꽃 화재 등이 많았으며 심야에 유독가스 중독이나 방화에 따른 인명피해가 큰 때문으로 분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 북구자원재활용센터에 분류된 캔과 비닐, 플라스틱 등이 종류별로 차곡차곡 쌓여있다. /니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캔에 담배꽂초 넣지 마세요”

광주 자치구 비닐·고철 등 재활용품 분리 수거

이물질 들어가 선별작업 어렵고 비용상승 부담

“캔에 담배꽂초 넣지 마세요. 비닐 봉지엔 이물질 버리지 마세요.”

광주시 각 자치구들이 비닐과 고철 등의 재활용으로 수익을 올리고는 있지만 캔과 비닐 등에 이물질을 섞어 버리는 시민들의 무분별한 처리로 선별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구별로 위탁 혹은 직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배출된 재활용품을 선별·가공하는 과정에 인력이 많이 투입됨에 따라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활용을 위해 수거한 물품에 이물질이 많아 여러

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건국동에 있는 북구의 재활용센터 한 관계자는 “고철, 캔류는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분리하느라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1회용 컵라면 용기의 경우 라벨 같은 재활용 부적합 물질을 제거하는데 손이 많이 들어가, 결국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고 토로했다.

동구 소태동의 동구재활용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직영으로 운영하며 주로 페스티로폼과 플라스틱을 활용해 공업용 재료를 만들어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전보다 인력투입 대비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다 고철(1kg당 300원→120원), 플라스틱류(1kg당 300원→280원)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도 낮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재활용센터 한 관계자는 “비닐과 스티로폼에 각종 이물질이 많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부터 제대로 분리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동구와 북구는 폐포장 활동을 통해 지난해 각각 5500만원과 4500만원을 벌었으며 10월 현재까지 각각 3500만원과 3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3분 해질 17시 23분 달돋이 13시 07분 달질 00시 10분

젯빛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다.

| 구분 | 구름량 | 기온 |
|-----|------|--------|
| 광주 | 구름많음 | 1/11℃ |
| 목포 | 구름많음 | 4/10℃ |
| 여수 | 구름많음 | 5/13℃ |
| 나주 | 구름많음 | 0/11℃ |
| 완도 | 구름많음 | 3/11℃ |
| 구례 | 구름많음 | -2/12℃ |
| 강진 | 구름많음 | -1/10℃ |
| 해남 | 구름많음 | 0/11℃ |
| 장흥 | 구름많음 | -1/11℃ |
| 순천 | 구름많음 | -2/11℃ |
| 영광 | 구름많음 | 0/10℃ |
| 진도 | 구름많음 | 2/10℃ |
| 전주 | 구름많음 | -1/11℃ |
| 군산 | 구름많음 | 0/9℃ |
| 남원 | 구름많음 | -3/11℃ |
| 홍산도 | 구름많음 | 8/11℃ |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감기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0.5~1.0m 보통 낮음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0.5~1.5m 보통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목포 07:51 00:5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여수 02:58 08:46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15:40 22:1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22(목) | 23(금) | 24(토) | 25(일) | 26(월) | 27(화) |
|-------|-------|-------|-------|-------|-------|-------|
| 날씨 | | | | | | |
| 최저/최고 | 3/13 | 4/9 | 1/9 | 1/11 | 5/9 | 2/9 |

머리 염색 4명중 1명 '가려움 등 부작용' 경험

흰머리 염색약을 사용하는 사람 4명 중 1명꼴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의대 성마로병원 피부과 강훈 교수팀은 머리염색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 319명을 조사한 결과 23.8%(76명)가 각종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작용은 가려움, 눈 따가움, 흉반 등의 순으로 많았는데,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한 76명의 환자 중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20명(26.3%)에 불과했다.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 중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염색약을 바꾼 경우가 72.4%(55명)에 달했으며 염색약을 바꾼 후에도 47.3%(26명)는 부작용이 계속됐다고 답했다. 이는 상당수 응답자들이 염색의 이유로 꼽은 '젊음'(53%), '좋은 인상'(36.7%) 등을 위해 염색 후의 여러 부작용을 견뎌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염색약 제품의 인지도도 크게 낮았다. 의료진이 시중에 판매되는 68종의 염색약제를 나열해 보여준 뒤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319명 중 73%(233명)가 상표를 제대로 고르지 못했다.

/연말뉴스

을 피하기 위해 염색약을 바꾼 경우가 72.4%(55명)에 달했으며 염색약을 바꾼 후에도 47.3%(26명)는 부작용이 계속됐다고 답했다. 이는 상당수 응답자들이 염색의 이유로 꼽은 '젊음'(53%), '좋은 인상'(36.7%) 등을 위해 염색 후의 여러 부작용을 견뎌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염색약 제품의 인지도도 크게 낮았다. 의료진이 시중에 판매되는 68종의 염색약제를 나열해 보여준 뒤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319명 중 73%(233명)가 상표를 제대로 고르지 못했다.

/연말뉴스

남북통일 기원 1000만인 서명 돌입

호남 4·19단체총연합회

전국을 순회하는 이동서명대(오프라인)와 온라인(www.cnn21.co.kr/모바일주소 m.cnn21.co.kr/gj419.org)을 통해 1000만명의 서명이 이뤄지면 광주 무등산에 세울 '4·19통일탑'에 타임캡슐 형태로 명단을 저장하고 통일이 이뤄지는 날 열 예정이다.

한편 '4·19통일운동 1000만인 서명'은 전국을 돌며 진행되고 서명인이 1000만명에 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224-041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약단

크리스마스에 떠나는 남이섬 · 김유정문학촌 · 소양댐 기차여행

남이섬은 "겨울연가", "우리결혼했어요"등등 여러 방송 촬영지로 내외국인에게 알려져 있는 곳이며, 매년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김유정생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단편문학 작가인 "김유정 선생"의 생가로 외양간, 디딜방앗간, 전시관 등으로 문화공간이다. 또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동양최대의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을 관광하게 되며, 춘천의 유명한 음식으로 알려진 춘천 먹거리등등 관광하게된다.

출발일 12월 24일 23시50분경 광주역 출발

여행비 성인 70,000원
소인 55,000원

포함사항 왕복무궁화호 열차비, 현지 차량비, 남이섬입장료, 여행자보험

제10회 광신대학교 전국학생 음악콩쿨 전국 초·중·고등학생 음악경연대회

2012 Kwangshin Music Competition

일시 2012. 11. 24(토) 오후 1시
장소 광신대학교 콘서트홀, 국제홀
접수기간 2012. 11. 1(목) ~ 11. 21(수) 오후 5시까지

참가자격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고등부는 당해년도 졸업자 포함-대학생 제외)(단, 고등부 당해년도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연부문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각 부문 행사일정은 행사 전날 본 대학 일반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함)

참가신청 참가비: 초등부 3만원 / 중·고등부 7만원
입금계좌: 광주은행 416-107-052719 (예금주: 최보라)
※ 반드시 참가자의 이름, 전공 기재할 것 / 입금후 전화확인 요망.
※ 제출된 모든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이 일체 불가함.

접수 인터넷 접수: 광신대 홈페이지 (www.kwangshin.ac.kr)
방문접수: 광신대학교 진리관 4층 음악학과 사무실

시상 대 상: 중 고등부 각 부문 1등 입상자 중 가장 우수한 자 (심사결과 90점 미만 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없음)
각 부문: 1등, 2등, 3등,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우수지도교사상: 입상자 다수 배출자교급 상패와 상장

목적 *대상 경연 진출자 중 선발함.
대 상: 상금 오십만원 (5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최우수상: 상금 삼십만원 (3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우수 상: 상금 이십만원 (200,000), 고급 상패와 상장
고등부 입상자: 본교 진학시 장학금 지급(대상/4년, 1등/3년, 2등/2년, 3등/1년)

과제곡

| 구분 | 부문 | 예선 | 본선 |
|------------|----------|--------|-------------------------|
| 피아노 | 초등부1-2학년 | | 자유곡 1곡 |
| | 초등부3-4학년 | 없음 | 자유곡 1곡 |
| | 초등부5-6학년 | 없음 | 자유곡 1곡 |
| 성악 | 중등부 | | 자유곡 1곡 (예선과 다른 곡) |
| | 고등부1-2학년 | 자유곡 1곡 | 자유곡 1곡 (예선과 다른 곡) |
| | 고등부 3학년 | 없음 | 자유곡 1곡 |
| 관현악 (현악부문) | 초등부1-2학년 | | 자유곡 1곡 (예선과 다른 곡) |
| | 초등부3-4학년 | 없음 | 자유곡 1곡 |
| | 초등부5-6학년 | 없음 | 자유곡 1곡 (예선과 다른 곡) |
| 관현악 (블랫부문) | 중등부 | | 자유곡 1곡 (합주곡일 경우 카덴자 포함) |
| | 고등부1-2학년 | 자유곡 1곡 | 자유곡 1곡 (예선과 다른 곡) |
| | 고등부 3학년 | 없음 | 자유곡 1곡 (합주곡일 경우 카덴자 포함) |
| 작곡 | 고등부 | | 주어진 동기에 의한 3부형식의 피아노곡 |

유의사항 모든 곡은 임의로 연주할 것.
필요한 악기 및 반주자는 출연자가 준비하여야 함.
참가자의 기량이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심사위원장이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음.

문의처 광신대학교 음악학과 사무실
전화 (062) 605-1130, 팩스(062) 571-7255

光神大學校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광신로 36